

'19년 논 타작물재배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조 서한문

박원순 시장님께

지난 한해는 봄철 이상저온,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시장님과 일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농업인 여러분께서 생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 등에 힘입어 20년 전 수준까지 하락했던 쌀값이 작년 수확기에는 80kg 한 가마당 193,568원으로 '17년과 비교하여 26.3%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말 기준 정부쌀 재고가 144만톤으로 적정수준의 약 2배에 달하고,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는 등 우리 쌀 산업은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벼 재배 면적 5만 5천ha 감축을 목표로 2년차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쌀값 상승 등으로 인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쌀값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수확기 쌀값이 급락하여, '17년과 같이 변동폭이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급률이 낮고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콩 위주로 재배를 확대하고,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도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금도 콩은 작년보다 ha당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 인상하여 농가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직접 사업 시작단계부터 해당 시·군의 논 타작물 재배 목표와 추진 계획 등을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역특화품목 중심으로 전문단지를 만들고 관련 단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쌀전업농은 벼 재배농지의 10% 타작물 재배 참여,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은 1필지 조사료 재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기술센터 등을 통해 영농기술농기제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농협·축협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십시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 담당 직원들이 올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도 적극 홍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특화 품목의 단지화 추진,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수매,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에 대하여 축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판매 실시, 농가의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일부 물량 별도 배정 등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 목표달성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이루고, 농가소득과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확기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 2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개 훈